

## 《수심결》 문답별 분석

구분	질문(제자)	답변(스승)
서 문	서문	① 마음밖에서 본성을 찾지말라 ② 본성이 진리이다.
제1문답	불성이 지금 내몸에 있다고 하는데 범부는 왜 보지 못하나?	①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스스로 보지 못해 못볼 뿐이다. ② 범부는 육신에 의존하고 집착하므로 불성을 보지 못한다.
제2문답	견성을 했는데 왜 신통변화를 나타내지 못하나?	① 공부에는 선후가 있다. 돈오문과 점수문 두가지가 있고, 먼저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. ② 돈오를 먼저한 뒤 점수를 해서 오래된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. ③ 돈오하고 점수를 하여 망상이 사라지면 신통한 작용이 나타난다.
제3문답	이미 돈오했는데 왜 점수가 필요한가?	① 중생은 지수화풍 사대가 조건되어 진 자신의 몸을 자신이라 여긴다. ② 돈오는 본성을 깨치는 것이고, 이는 부처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. ③ 점수는 그 깨침에 의지해서 오래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다.
제4문답	어떤 방편으로 본성을 깨달을 수 있나?	① 이미 주어진는데, 방편은 필요없다. 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. ② 보고 있는데 눈을 따로 찾는 것과 같다.
제5문답	중하근기를 위해 본성을 깨달을수 있는 방편을 말해 달라.	① 육근은 텅 비어있다. 텅비어있는 것을 아는 마음이 공적영지이고 본래면목이다. ② 그 마음을 깨달으면 일생에 해야 할일을 마친 것이다.
제6문답	공적영지의 마음은 무엇인가?	① 공적영지는 텅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으로 형상과 모양이 없다. ② 공적영지는 오고감도, 생사도, 부처와 중생도 구별되지 않는 자리이다.
제7문답	깨달음에는 계급이 없는데, 어찌 점수를 해야하나?	① 돈오했어도 오랫동안 오도 윤회를 하여 생긴 무명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점수가 필수적이다. ② 미세한 번뇌의 흐름까지도 알아차려 수시로 생겨나오는 망념을 제거한다.
제8문답	선정과 지혜를 동등하게 닦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	①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기본성의 선정이요,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기본성의 지혜이다 ② 정과 혜는 상호 의존적이고 둘이 아니다. ③ 선정으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, 지혜로써 멍한 상태를 다스린다.
제9문답	선정과 지혜를 동등하게 닦는데, 두가지 수행법에 대해 말해달라.	① 선정과 지혜를 닦는 두가지 문(자성문, 수상문)이 있다. ② 자성문 자기본성의 문이고, 돈문이며 부처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문이다. ③ 수상문은 대상을 따르는 문이고 점문이며, 열등한 근기가 닦는 수행법이다. ④ 자성문을 통해 깨달은 자도 수상문의 방편을 빌려 수행을 완성한다.